KSADP

ISSN 2288-4270 (Print)
ISSN 2733-8711 (Online)

발달지원연구

제11권 제2호 (2022년 8월)

KJADP

한국발달지원학회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 11권 제2호

본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입니다.

2022년 8월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 달 지 원 연 구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제11권 제2호 / 2022. 8.

양육태도가 불일치하는 부모를 둔 초기성인 자녀의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오세옥 · 하정희 / 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유연성으로 조절된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최윤정 · 이창현 / 29

성인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차원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구미영 · 송원영 / 55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요구조사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지원방안
……한지현 · 최재광 · 이유경 · 송원영 / 75

유아용 6요인 기질척도의 개발과 타당화……이인영 · 윤진영 · 최해훈 · 김수아 · 최은실 / 95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이미진 · 김도연 / 117

한 국 발 달 지 원 학 회

The Korean Journal for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11, No. 2, 75-94
DOI: 10.22839/adp.2022.11.2.75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요구조사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지원방안*

한 지 현 | 최 재 광 | 이 유 경 | 송 원 영†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석사과정 | 건양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석사과정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위기지원의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61명과 위기청소년 64명을 대상으로 위기경험, 위기 및 문제행동수준, 청소년 안전망 연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위기청소년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위기를 경험하였으며, 위기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청소년들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거주지원 등을 받았으며 의식주와 같은 기초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들이 보고한 청소년안전망 연계 현황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류정도와 연계 비중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역사회 내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한 치료형 쉼터, 심리지원센터 등 치료형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과 지역사회기반 청소년 위기지원을 위한 제안,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역사회, 위기지원, 위기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

* 이 연구는 2021년 충청남도 의회 연구용역인 '충남지역 가출 등 위기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보고서의 일부로 발표된 바 있음.
† 교신저자: 송원영,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32992)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E-mail: song@konyang.ac.kr

청소년 위기는 개인, 지역사회,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de Vries, Hoeve, Assink, Stams, & Asscher, 2015). 청소년 위기란 현재 나타나지 않았으나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청소년을 부정적인 위험에 빠지게 하는 상태에서 보호체계로부터의 이탈, 비행, 정신건강문제 등 위험한 상태까지의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를 의미한다(McWhirter, McWhirter, McWhirter, & McWhirte, 1995; Odgers et al., 2008). 위기는 청소년을 위험 상황에 노출시킴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여 범죄, 경제적 빈곤 등 부적응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진혜민, 배성우, 2012; Osgood, Johnston, O'Malley, & Bachman, 1988; Savaglio, O'Donnell, Hatzikiriakidis, Vicary, & Skouteris, 2022; Wiley & Berman, 2013; Xie, Sen, & Foster, 2014). 우리나라에서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비행, 자살, 학업중단, 가출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황순길 등, 2016). 또한 이러한 문제는 위기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순길 등, 2016;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는 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과 잠재적 위기 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황여정, 이정민, 2020). 청소년들이 위기를 경험하는 원인으로는 역기능적 가정, 학교, 심리적 특성 등이 있다(McWhirter et al., 1995). 적응적인 가정의 경우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Bales & Parsons, 2014; Hardaway, Sterrett-Hong, Larkby, & Cornelius, 2016). 그러나 가족 관계 문제, 부모의 무관심 또는 과잉보호, 형제·자매 간의 경쟁 등 가족의 부적응적인 특성은 청소년들의 가출 및 비행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작용한다(서보람, 김광병, 2012; Vashisht & Tanwar, 2018). 또한 부적응적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성격 및 정서발달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역경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회복탄력성이 감소하고 대인관계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olkoski & Bullock, 2012). 학교는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김신아, 한윤성, 2016; 안은미, 정익중, 2019). 그러나 48.4%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21), 또래문제, 교사와의 갈등, 학업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보준, 이진열, 2018;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학업중단은 학업실패라는 생각으로 인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고(박병금, 노필순, 2016; 원경림, 이희종, 2019), 학교를 이탈하여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또래관계의 영향으로 비행 및 범죄와 같은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Gubbels, van der Put, & Assink, 2019). 청소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학교 등의 요인들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양종국, 김충기, 2002; 이세정, 고은숙, 이호준, 2018).

청소년 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역기능적 심리요인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발달특성상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를 흔히 경험할 수 있다(Ahmed, Bittencourt-Hewitt, & Sebastian, 2015; Young, Sandman, & Craske, 2019). 청소년기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정서 및 문제행동, 지위비행 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Rafnsson, Jonsson, & Windle, 2006). 부정정서는 반사회적 행동, 비행, 공격성 및 품행 문제 등의 외현화 문제와 약물남용, 자살 등의 내재화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홍주, 2020; Carballo et al., 2020; Hinshaw, 1992; McDanal, Parisi, Opara, & Schleider, 2021).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으로 인한 다양한 부적응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환경변화를 촉진하고 총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위기개입 서비스가 중요하다(Bilsen, 2018; Gross-Manos, Cohen, & Korbin, 2022).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 청소년 서비스는 신속한 치료 및 조기 개입, 청소년 친화적 환경 및 서비스, 증거 기반 접근 방식, 파트너십 및 협력 등을 공유하는 동시에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Settipani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Wee 프로젝트 등의 청소년 상담·복지기관 및 청소년 사업을 통해 상담, 교육, 직업 및 취업, 생활 및 자립 등 다차원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리 및 상담 지원은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로 학교 부적응, 심리적 어려움, 정서·행동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김신영, 2019; 박순우, 박연실, 백욱현, 2018; 최효진, 이보영, 조원희, 한창근, 2019). 교육지원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보호자가 부재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업프로그램, 검정고시, 대학입시 설명회, 학교 복귀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여성가족부, 2020). 진로 및 취업 지원은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고민하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적성과 진로 탐색,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생활 및 자립지원은 의식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유해환경에 노출된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쉼터, 아동양육시설 등 가정 외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립준비에 필요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말한다(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이경상, 2011; 여성가족부, 2020). 이러한 지원은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축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인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청소년 안전망은 연결 중심성, 서비스 영역 등 네트워크 유형에 따라 연계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연계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박승곤, 2017; 이영수, 길현종, 2020).

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는 위기청소년의 욕구와 문제해결, 건강한 삶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손병덕, 오혜정, 임희수, 2017). 실제로 위기지원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자기 비판적 사고가 낮아지고 자아탄력성이 향상되었다(장해영, 구자경, 2021).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였다(장해영, 구자경, 2021). 그러나 정부의 정책 및 위기개입 지원서비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침에 따라 집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윤철수, 김승용, 2016).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상담, 지도, 치료 등 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년 복지시설 실무자들은 지역적 특성 및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활용의 한계 등의 이유로 위기청소년 지원에서 어려움

을 경험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백혜정, 2020; 박승곤, 김수정, 2017). 예를 들어 도시지역의 경우 위기청소년의 높은 비율로 현장 실무들이 담당하는 사례가 많아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지만, 읍면동 지역의 경우 위기청소년과 지원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김희진, 백혜정, 2020).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연계의 한계를 경험하였다(박승곤, 김수정, 2017).

이러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본다면 청소년들은 가정, 학교, 심리적 문제로 위기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복지시설의 도움을 통해 청소년 위기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서비스는 위기청소년들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안전망에 포함되는 기관들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나 의뢰 목적, 제공 서비스에 따라 기관 간 연계정도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기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 및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 종류와 청소년 안전망을 위기청소년과 이들을 관리하는 실무자를 통해 확인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위기청소년 지원방안을 제안하려한다.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지역사회의 위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위기 및 지원 실태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도농복합지역 중 하나인 충청남도를 선정하였다.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충남 소재 청소년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에 소속된 위기청소년 64명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충남 소재 청소년기관에 해당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청소년쉼터, 아동양육시설에 소속된 위기청소년 64명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은 남성 26명(40.6%), 여성 38명(59.4%)이었으며, 연령은 13세 1명(1.6%), 14~16세 19명(29.7%), 17~19세 37명(57.8%), 20~24세 7명(10.9%)으로 구성되었다(표 1).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는 표 1과 같이 남성 22명(36.1%), 여성 39명(63.9%)이고, 소속은 아동거주시설 18명(29.5%), Wee센터 17명(27.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명(19.7%), 청소년 쉼터(자립관) 12명(19.7%), 아동보호전문기관 1명(1.6%), 아동양육시설 1명(1.6%)이었다. 근무 경력은 5면~10년 미만 26명(42.6%), 1년~5년 미만 24명(39.3%), 10년~15년 미만 9명(14.8%), 15~20년 미만 2명(3.3%)으로 조사되었다.

측정도구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설문지

청소년들이 경험한 위기, 국가나 단체 등 지원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청소년 N=64,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N=61)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성별	남성	26	40.6
		여성	38	59.4
	연령	초등학생	1	1.6
		중학생	19	29.7
		고등학생	37	57.8
		후기청소년	7	10.9
	합계		64	100.0
청소년 복지시설 실무자	성별	남성	22	36.1
		여성	39	63.9
	소속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19.7
		Wee센터	17	27.9
		청소년쉼터(자립관)	12	19.7
		아동거주시설	18	29.5
		아동보호전문기관	1	1.6
		아동양육시설	1	1.6
	근무 경력	1년 이상 5년 미만	24	39.3
		5년 이상 10년 미만	26	42.6
		10년 이상 15년 미만	9	14.8
		15년 이상 20년 미만	2	3.3
	합계		61	100

기관에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1, 박사급 연구원 1명, 석사급 연구원 2명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작한 청소년 도움경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경험하고 있는 위기, 지원여부, 지원기관에 대한 인지적, 인적 자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시로는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모두 표시하세요(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등이 있다.

위기수준 척도

위기수준 척도는 배주미 등(2010)이 개발한 척도를 황순길 등(2016)이 보완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개인, 가정, 또래, 학교, 지역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우울·불안(8문항), 공격성·충동성·부주의(8문항), 부모와의 갈등관계·방임(6문항), 부모 간 갈등(2문항), 문제 가족원(3문항), 비행친구(4문항), 학교생활부적응(4문항), 지역사회 유해환경(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예시로는 '가까운 친구 중에 가출한 친구가 있다.', '부모님은 자주 싸우신다.', '지난 1년 동안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등이 있다. 황순길 등(2016)은 고위험군&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일반군을 구분하기 위해 앵고프(Angoff) 방식에 따라 분할점수를 산출한

결과, 위기요인 척도의 총 점수 0-124점 중 57점 이상일 때 위험군&고위험군으로, 미만일 때 일반군&잠재군으로 분류되었다(황여정, 이정민. 2020). 황순길 등(2016)의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계수 .955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 YSR)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자기보고용(Youth Self Report)는 Achenbach와 Rescorla(1991)가 개발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2001)가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YSR은 아동·청소년기의 문제행동 및 사회적 능력을 확인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다. 전체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제행동증후군(103문항)과 사회능력 척도(16문항)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문제행동증후군척도는 위축(7문항), 신체증상(9문항), 우울/불안(16문항), 사회적 미성숙(8문항), 주의집중문제(9문항), 비행(11문항), 공격성(19문항), 자해/정체감문제(12문항)로 나눌 수 있다. 오경자 등(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 .63~.85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75~.94로 나타났다.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실태조사 설문지

지역사회기반 위기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조사 설문지는 임상심리학 전공 교수 1명, 박사급 연구원 1명, 석사급 연구원 2명이 선행연구 및 청소년 쉼터 실무자 1명, 보호관찰소 실무자 1명과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실무자가 현장에서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는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 등 지원기관 총 12곳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추가 의견은 주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하고 있는 기관과의 의뢰 빈도', '연계 기관과의 연계 중요도' 등의 문항에 대해 0~10점 중 평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도가 잦고, 중요도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높은 점수를 평정한 이유에 대해 주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자가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설문지는 총 17문항이며, '청소년 기관의 지역적 안정성 확보(기관의 독립된 건물 등)', '지역 대학, 기업과의 멘토링 제도' 등 기관에 대한 지원, 근무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주관식을 통해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해당 지원의 중요성을 0~10점 중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그렇게 평정한 이유를 주관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 21을 사용하였다. 조사 문항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진행하였다. 백분율에 대한 환산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을 보고하였고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평가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위기 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위기청소년이 받은 경험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x축은 도움 받은 경험, y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 빈도, 피의뢰 빈도, 연계 중요도, 연계 만족도

이상 네 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x축은 교류 정도, y축은 연계 비중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위기청소년이 경험한 사건

위기청소년들이 경험했던 사건들은 표 2와 같다. 이들이 가장 흔한 위기 경험은 가정폭력(15.7%)으로,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학교폭력(가·피해) 13.0%, 학업중단 11.3%로, 학교에서 경험했던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였다. 뒤이어 가출 10.4%, 학교징계 8.7%, 교사와의 갈등 8.7%, 비행 7.8%, 학교 6.1%, 성폭력(피해) 6.1%, 가정해체 4.3%, 법적처벌 2.6% 순이었으며, 가출 팸 및 성매매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와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율은 5.2%였다.

위기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수준 비교

위험군&고위험군과 일반군&잠재군을 구분함으로써 청소년 위기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일반군과 임상군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먼저 내재화 영역인 위축/우울(t = −6.09, p < .001), 신체증상(t = −4.32, p < .001), 우울/불안(t = −5.59, 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외현화 영역인 비행행동(t = −5.35, p < .001), 공격성(t = −5.63, p < .00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미성숙(t = −3.58, p < .001), 사고문제(t = −4.79, p < .00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위기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일반군보다 문제행동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청소년이 받았던 도움 및 필요한 지원

표 2. 위기청소년이 경험한 사건

사건	빈도	비율(%)
가정폭력	18	15.7
학교폭력(가·피해)	15	13.0
학업중단	13	11.3
가출	12	10.4
학교징계	10	8.7
교사와의 갈등	10	8.7
비행	9	7.8
학교	7	6.1
성폭력(피해)	7	6.1
없음	6	5.2
가정해체	5	4.3
법적처벌	3	2.6
가출 팸	-	-
성매매	-	-

주. 사건에 대한 응답은 중복 응답을 포함함

표 3. 위기수준에 따른 문제행동수준 비교

구분	집단	인원 수	*M*(*SD*)	*t*
위축/우울	일반군	35	1.91(2.42)	-6.09***
	위험군	29	5.97(2.91)	
신체증상	일반군	35	1.49(2.15)	-4.32***
	위험군	29	5.03(3.97)	
우울/불안	일반군	35	3.74(4.36)	-5.59***
	위험군	29	12.62(7.58)	
사회적 미성숙	일반군	35	1.74(1.95)	-3.58***
	위험군	29	4.45(3.66)	
사고 문제	일반군	35	0.86(1.14)	-4.79***
	위험군	29	2.97(2.13)	
주의 집중문제	일반군	35	3.40(2.77)	-4.94***
	위험군	29	7.97(4.30)	
비행 행동	일반군	35	0.97(1.18)	-5.35***
	위험군	29	5.28(4.20)	
공격성	일반군	35	3.14(3.24)	-5.63***
	위험군	29	12.17(8.12)	

***p<.001

위기청소년이 센터나 쉼터 등 기관으로부터 받았던 도움은 표 4와 같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던 영역은 심리상담 지원이며(35.1%), 뒤 이어 거주 지원(16.0%), 학업 지원(16.0%), 경제적 지원(14.5%), 직업 및 취업 지원(6.1%), 법률 지원(5.3%)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22.1%), 직업 및 취업 지원(22.1%)이었다. 차례로 학업 지원(19.1%), 심리상담 지원(15.3%), 거주 지원(10.2%), 법률 지원(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화하기 위해 x축을 도움 받은 경험, y축은 필요한 지원으로 설정하여

표 4. 위기청소년이 받았던 도움 및 필요한 지원

내용	도움 경험	필요성
	빈도(%)	빈도(%)
심리상담 지원	46(35.1)	20(15.3)
거주 지원	21(16.0)	18(10.2)
학업 지원	21(16.0)	25(19.1)
경제적 지원	19(14.5)	29(22.1)
직업 및 취업 지원	8(6.1)	29(22.1)
법률 지원	7(5.3)	8(6.1)
기타	3(2.3)	2(1.5)

주. 내용에 대한 응답은 중복 응답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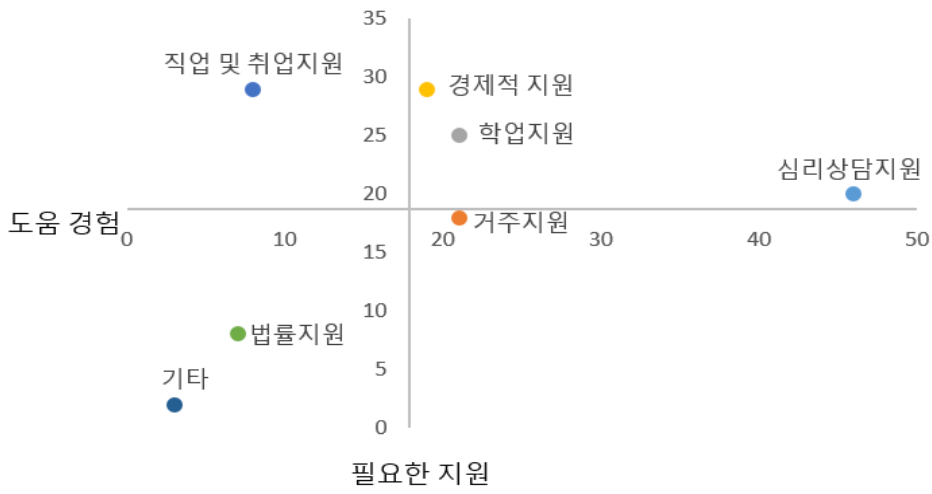


그림 1. 위기청소년이 받았던 도움 및 필요한 지원

살펴본 결과 그림 1과 같다. 경제지원과 학업지원 그리고 심리상담지원이 가장 많이 지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필요한 도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안전망 교류 및 연계 현황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가 직접 경험한 청소년 안전망 연계 현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교류 정도에서 가장 높은 기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9.7점)으로 나타났다. 차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8.6

표 5. 청소년 안전망 교류 및 연계 현황(단위: 점수)

기관	의뢰 빈도 (A)	피의뢰 빈도 (B)	교류 정도 (A+B)	연계 중요도 (C)	연계 만족도 (D)	연계비중 (C+D)
아동보호전문기관	4.3	5.4	9.7	8.0	6.8	14.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	3.7	8.6	7.4	7.2	14.6
Wee센터	3.5	4.5	8	7.0	6.4	13.4
행정복지센터	3.5	4.0	7.5	7.4	6.8	14.2
쉼터	3.5	3.0	6.5	7.6	6.6	14.2
개인 상담센터	4.2	2.2	6.4	6.7	6.3	13
보육원	2.7	3.5	6.2	7.0	6.2	13.2
꿈드림센터(학교 밖)	2.6	2.3	4.9	6.9	6.6	13.5
보호관찰소	1.6	2.1	3.7	5.9	5.8	11.7
가정폭력상담소	1.7	1.8	3.5	6.4	5.6	12
성폭력상담소	1.8	1.6	3.4	6.5	5.9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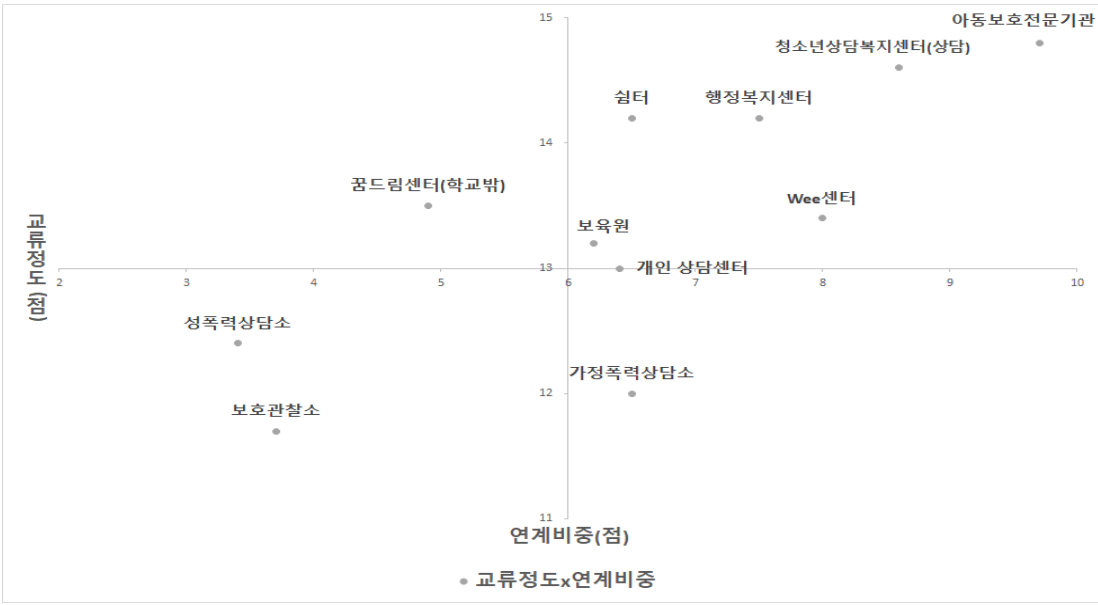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안전망 교류 및 연계 현황

점), Wee센터(8점), 행정복지센터(7.5점), 쉼터(6.5점), 개인 상담센터(6.4점) 등이었다. 다음으로 연계 비중은 아동보호전문기관(14.8점)으로 연계의 중요성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기관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뒤이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가 14.6점, 행정복지센터 14.2점, 쉼터 14.2점, 꿈드림센터(학교 밖) 13.5점, Wee센터 13.4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안전망 연계 현황은 높은 교류 정도와 높은 연계 비중, 높은 교류 정도와 낮은 연계 비중, 낮은 교류 정도와 높은 연계 비중, 낮은 교류 정도와 낮은 연계 비중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고 x축을 교류 정도 및 y축을 연계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후 기관의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첫째, 두 가지 모두 높은 영역엔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 Wee센터, 행정복지센터, 쉼터, 보육원, 개인 상담센터가 속하였다. 둘째, 교류 정도는 높으나 연계 비중이 낮은 기관은 가정폭력상담소가 해당되었으며, 셋째, 교류 정도는 낮으나 연계 비중은 높은 기관은 꿈드림센터(학교밖)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모두 낮은 영역엔 성폭력상담소, 보호관찰소가 해당되었다.

추가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들은 신용할 수 있는 기관, 적시의 연계 및 개입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연계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 여부, 기관 및 상담 전문 인력의 높은 관심, 전문성 등으로 인해 높은 연계 만족도 점수를 평정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확충이 필요한 청소년 시설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시

표 6. 확충이 필요한 시설(단위: 점수)

기관	중요성
치료형 쉼터	8.4
심리지원센터	7.8
긴급구조 및 보호시설	7.3
자립관	7.3
중장기쉼터	7.2
인터넷드림마을형 중독치료센터	7.2
일시 쉼터	7.1
국립중앙디딤센터형 치료재활센터	6.9
단기 쉼터	6.9
번화가 청소년 문화 공간	6.8
회복지원시설	6.7
아동거주시설	6.6
아동보호전문기관	6.5
사이버, 모바일 상담 전문기관	6.4
소규모 거주시설	6.2
가정형 Wee 스쿨	5.4
청소년 문화의 집	5.2
청소년 수련원	5.0
청소년 수련관	5.0

설은 표 6과 같다. 치료형 쉼터(8.4점), 심리지원센터(7.8점), 긴급 구조 및 보호시설(7.3점), 자립관(7.3점), 중장기 쉼터(7.2점), 인터넷드림마을형 중독치료센터(7.2점), 일시 쉼터(7.1점)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대한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이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 개입 및 지원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특징과 이들을 돕기 위한 지원 방법을 선행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위기청소년 64명에게 위기 및 도움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움에 대해 조사하고, 행동 및 정서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 61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각하는 청소년 안전망의 중요성을 확인하고자 지원기관 교류정도 및 연계비중과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요구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논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사건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가정폭력, 학교폭력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업중단, 가출, 학교징계, 교사와의 갈등, 비행 등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및 학교와 같은 기본적 보호체계에서 청소년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은 청소년 위기의 주된 원인이며 가정과 학교라는 보호체계를 이탈하게 만든다. 또한 청소년들의 위기는 단일적으로 경험하

는 것이 아닌 개인, 가족, 또래, 지역사회 등 다차원적인 위기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가출, 학업중단, 비행 등 복합적인 위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Bushman et al., 2016; Logan, Vagi, & Gorman-Smith, 2016; Sands & Dixon, 1986).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함으로써 보호체계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년 위기수준에 따른 문제행동 수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군(일반군-잠재군)과 임상군(위험군-고위험군)구분한 이후 문제행동 수준을 비교한 결과, 위기청소년들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문제행동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영역인 위축/우울, 신체증상, 우울/불안의 경우 약물남용, 자살과 같은 위기와 연관이 있으며 공격성, 비행행동에 해당하는 외현화 영역은 학업중단, 파괴적 행동 및 비행과 연관이 있다(Hinshaw, 1992; McDanal, Parisi, Opara, & Schleider, 2021). 또한 가정학대, 방임 등을 경험한 위기청소년의 경우 양육자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부족으로 적절한 판단과 대응이 미성숙하다(Kljakovic & Hunt, 2016; Perry, Hodges, & Egan, 2001). 따라서 문제행동수준을 낮춤으로 위기의 진입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위기수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들이 위기상황에서 도움 받은 경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기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지원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지원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거주지원, 학업지원, 경제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움은 경제적 지원, 직업 및 취업지원, 학업지원, 심리상담지원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해 개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주와 같은 생존을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들은 위기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여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고(박승곤, 2017), 농어촌 지역의 위기청소년은 경제 활동을 위해 경제 및 문화 자본이 집중되어있는 타 도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ugia, 2016).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심리상담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위기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청소년 안전망 연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행정복지센터, 쉼터, 개인 상담센터 순으로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가정폭력, 가족 간 갈등, 가정해체 등과 같은 부적응적 가정환경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해 연계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김기현, 김미숙, 양심영, 하태정, 2014).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청소년네트워크인 청소년 안전망의 필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심리상담, 지역 기관 연계 등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연계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2). 선행연구에 따르면 연계 정도에 따라 지원 종류의 다양성,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청소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안전망 연계가 청소년 문제 해결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몇 지역사회의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형태의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 2018). 따라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민간 협력 안전망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개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에 확충이 필요한 청소년 시설을 조사한 결과 치료형 쉼터와 심리지원센터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행동 문제로 인해 심리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경기에 설치되어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최근에는 대구에 설치되어 청소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질병관리청, 2021), 이로 이해 심리상담을 경험하는 청소년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여성가족부, 2021),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은 입소 기회나 시기가 한정되어 있는 등의 한계가 있다. 이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내 위기청소년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더 많은 치료재활센터, 국공립심리치료센터 등 심리지원센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긴급구조 및 보호시설, 자립관, 중장기 쉼터 등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 및 보호시설의 경우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보호체계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립관, 쉼터의 경우 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받지 못해 의식주 등의 기초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며(여성가족부, 2020),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지원 방안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를 탐색하고 위기수준에 따른 심리적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의 종류와 수준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가능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차원적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에도 청소년의 위기 종류에 따른 세부적 지원을 위해 법령과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위기 문제는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이 지원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와 실제적으로 요구하는 서비스 종류의 비교를 통해 청소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은 심리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학업지원, 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이 처한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청소년 욕구를 고려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가 경험하는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 실태를 통해 각 기관의 연계 정도와 교류비중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 위기 유형과 기관의 전문영역 등에 따라 청소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청소년 지원

기관의 연계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지원기관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 지자체, 지역주민들과의 협력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넷째,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지원기관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청소년 지원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정서·행동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심리치료시설의 경우 중소도시, 읍면동에서는 접근성이 낮아진다. 청소년 지원기관 및 치료시설의 접근성은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수준과 도움 요청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이진희, 2021). 이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치료시설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규모,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원기관을 확충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충청남도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로 전국단위 위기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대도시 단위의 경우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및 청소년 지원기관 접근성, 청소년 안전망 연계 현황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도시 간, 도시 내 읍면동 지역 특성에 따라 청소년 지원기관 접근성이 다르며 연계 현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김희진, 백혜정, 2020), 지역별 청소년 위기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 방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소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의 실태를 확인하고 지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중소도시가 혼합된 지역의 위기청소년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추후에는 대도시와의 지역 간 실태를 비교하는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소속된 위기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점은 발굴되지 않았거나, 안전망을 이탈한 위기청소년의 도움경험과 필요한 지원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발굴되지 않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의견 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다양한 지원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기경험과 필요한 지원을 탐색하여 통합적인 지원방향을 고려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 안전망 내에서 지원받고 있는 위기청소년과 과거 지원을 받았으나 청소년 안전망을 이탈하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위기청소년, 발굴되었으나 지원받지 않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위기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청소년의 위기경험 및 위기수준에 초점을 두어 위기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을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위기청소년의 개입에 있어 필수적이다(Rennie & Dolan, 2010). 보호요인 중 지역사회는 자립준비,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이 있다(김은녕, 서보람, 2018; 좌현숙, 2016; 현다경, 김형모, 2018). 그러나 위기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ller, Esposito-Smythers, & Leichtweis,

2015).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한 지역사회 기반 위기지원은 위기청소년의 위기를 감소시키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보호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입 방향성 및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도록 제시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주관적 관점을 수용하고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개입과 지원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위기청소년의 경우 위기경험, 위기수준 등의 편차로 인해 현실적인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 차이와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 연구는 위기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위기지원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 고 문 헌

여성가족부 (2022).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http://www.nyhc.or.kr/IndexNServlet에서 2022년 06월 01일에 자료 얻음.

김기현, 김미숙, 양심영, 하태정 (2014).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연계성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7), 1-34.

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청소년 고위기 상황 및 효과적 개입에 대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담당자의 인식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2), 281-303.

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가정외 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김신아, 한윤선 (2016). 지역사회 유해환경과 청소년의 음주흡연 경험과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보호 작용. 아동학회지, 37(1), 37-48.

김신영 (2019). 위기청소년 대응 정책 평가 연구: 청소년 폭력과 CYS-net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0(1), 123-150.

김은넝, 서보람 (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진로태도성숙이 자립준비에 미치는 영향: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12), 197-207.

김홍주 (2020). 청소년의 정서적 외상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찰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5), 1-35.

김희진, 백혜정 (2020).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모형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 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박순우, 박연실, 백욱현 (2018). Wee 프로젝트 종사자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58), 95-121.

박승곤, 김수정 (2017).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종사자의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4(4), 233-257.

박승곤 (2017). 지역사회 내 시· 군·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2, 59-8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8101호] 제12조의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74호], 제10조 제1항

서보람, 김광병 (2012). 가출 청소년의 가출팸 경험에 대한 연구: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연구, (18), 1-26.

서보준, 이진열 (201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5(2), 179-200.

손병덕, 오혜정, 임희수 (2017).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개인 심리, 우울감, 가정생활, 또래관계의 사이에서 사회적 지지와 상담복지지원 기관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1), 79-101.

안은미, 정익중 (2019).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낙인감 발달궤적이 학교적응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1), 229-244.

양종국, 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0(2), 101-122.

여성가족부 (2020). 2020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21). 2021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경림, 이희종 (2019). 청소년기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끼치는 영향에서 학교유대감, 우울 및 불안의 매개효과: 교사유대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6(9), 79-104.

윤철수, 김승용 (2016). 제 3 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의 의미와 한계 대한 고찰: 천안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8, 1-27.

이경상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341-362.

이세정, 고은숙, 이호준 (2018).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영향.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5), 147-156.

이영수, 길현종 (2020). 사회서비스 기관 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조직형태별 네트워크 유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7-179.

이진희 (2021). 청소년 자살위험도의 공간적 분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공공상담서비스 기관의 접근성 분석: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9(2), 59-68.

장해영, 구자경 (2021). 친인척 위탁 청소년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지원 받은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7(3), 73-105.

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좌현숙 (2016). 청소년 내재화 문제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97-127.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질병관리청 (2021).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청주: 질병관리청

최효진, 이보영, 조원희, 한창근(2019).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참여자 만족의 예측변인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66), 39-64.

한국청소년상담원 (2008). 위기개입-3판. 서울: 한

국청소년상담원

현다경, 김형모 (2018). 청소년의 가정환경, 친구관계, 교육환경 및 지역사회환경이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인식 및 정서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4), 1-26.

황순길, 김동민, 강태훈, 손재환, 김화연, 김지혜 (2016). 2016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황여정, 이정민, 김수혜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예비조사 데이터분석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 이정민 (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Child behavior checklist. *Burlington (Vt), 7*, 371-392.

Ahmed, S. P., Bittencourt-Hewitt, A., & Sebastian, C. L. (2015). Neurocognitive bases of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cognitive neuroscience, 15*, 11-25.

Bales, R. F., & Parsons, T. (2014).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routledge.

Bilsen, J. (2018). Suicide and youth: risk factors. *Frontiers in Psychiatry, 9*, 540

Bushman, B. J., Newman, K., Calvert, S. L., Downey, G., Dredze, M., Gottfredson, M., Jablonski, N. G., Masten, A. S., Morrill, C., Neill, D. B., Romer, D., & Webster, D. W. (2016). Youth violence: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American Psychologist, 71*(1), 17 - 39.

Carballo, J. J., Llorente, C., Kehrmann, L., Flamarique, I., Zuddas, A., Purper-Ouakil, D., Hoekstra, P. J., Coghill, D., Schulze, U. M. E., Dittmann, R. W., Buitelaar, J. K., Castro-Fornieles, J., Lievesley, K., Paramala Santosh, & Arango, C. (2020).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ality in children and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6), 759-776.

de Vries, S. L., Hoeve, M., Assink, M., Stams, G. J. J., & Asscher, J. J. (2015). Practitioner review: effective ingredients of prevention programs for youth at risk of persistent juvenile delinquency - recommendations fo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6*(2), 108-121.

Farrugia, D. (2016). The mobility imperative for rural youth: The structural, symbolic and non-representational dimensions rural youth mobilities.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836-851.

Gross-Manos, D., Cohen, A., & Korbin, J. E. (2022). Community change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at-risk: a review of lessons learned. *Trauma, Violence, & Abuse, 23*(1), 20-35.

Gubbels, J., van der Put, C. E., & Assink, M. (2019). Risk factors for school absenteeism and dropout: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8*(9), 1637-1667.

Hardaway, C. R., Sterrett-Hong, E., Larkby,

C. A., & Cornelius, M. D. (2016). Family resources as protective factors for low-income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5*(7), 1309-1322.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ogical bulletin, 111*(1), 127-155.

Kljakovic, M., & Hunt, C. (2016). A meta-analysis of predictors of bullying and victimis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49*, 134-145.

Logan, J. E., Vagi, K. J., & Gorman-Smith, D. (2016). Characteristics of youth with combined histories of violent behavior, suicidal ideation or behavior, and gun-carrying. *Crisis: The Journal of Crisi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7*(6), 402 - 414.

McDanal, R., Parisi, D., Opara, I., & Schleider, J. L. (2021). Effects of Brief Interventions on Internalizing Symptoms and Substance Use in Youth: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7.

McWhirter, J. J., McWhirter, B. T., McWhirter, A. M., & McWhirter, E. H. (1995). Youth at risk: Another point of view.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JCD, 73*(5), 567-569.

Miller, A. B., Esposito-Smythers, C., & Leichtweis, R. N. (2015). Role of social support in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6*(3), 286-292.

Odgers, C. L., Moffitt, T. E., Broadbent, J. M., Dickson, N., Hancox, R. J., Harrington, H., Poulton, R., Sears, M. R., Thomson, W. M., & Caspi, A. (2008). Female and male antisocial trajectories: From childhood origins to adult outcom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2), 673-716.

Osgood, D. W., Johnston, L. D., O'Malley, P. M., & Bachman, J. G. (1988). The generality of deviance in late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1), 81-93.

Perry, D. G., Hodges, E. V. E., & Egan, S. K. (2001). Determinants of chronic victimization by peers: A review and new model of family influence. In J. Juvonen & S. Graham (Eds.), *Peer harassment in school: The plight of the vulnerable and victimized* (pp. 73-104). New York: Guilford Press.

Rafnsson, F. D., Jonsson, F. H., & Windle, M. (2006). Coping strategies, stressful life events, problem behaviors, and depressed affect. *Anxiety, Stress, and Coping, 19*(3), 241-257

Rennie, C. E., & Dolan, M. C. (2010). The significanc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assessment of risk.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0*(1), 8-22.

Sands, R. G., & Dixon, S. L. (1986). Adolescent crisis and suicidal behavior: Dynamics and treatmen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2), 109-122.

Savaglio, M., O'Donnell, R., Hatzikiriakidis, K., Vicary, D., & Skouteris, H. (2022). The Impact of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s for Australian Youth: A Systema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1-18.

Settipani, C. A., Hawke, L. D., Cleverley, K., Chaim, G., Cheung, A., Mehra, K., Rice, M., Szatmari, P., & Henderson, J. (2019). Key attributes of integrated community-based youth service hubs for mental health: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13*(1), 1-26.

Vashisht, S., & Tanwar, K. C. (2018). Juvenile Delinquents:" A Cause for concern" Role of Family Environment, Life Satisfaction & Resilience in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Psychosocial Research, 13*(2), 389-397.

Wiley, R. E., & Berman, S. L. (2013). Adolescent identity development and distress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9*(12), 1299-1304.

Xie, R., Sen, B., & Foster, E. M. (2014). Vulnerable youth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2014*(143), 29-38.

Young, K. S., Sandman, C. F., & Craske, M. G. (2019).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regulation in adolescence: links to anxiety and depression. *Brain sciences, 9*(4), 76.

Zolkoski, S. M., & Bullock, L. M. (2012). Resilience in children and youth: A re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12), 2295-2303.

1차 원고접수 : 2022. 06. 29.
수정원고접수 : 2022. 07. 27.
최종게재결정 : 2022. 08. 30.

발달지원연구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022, Vol. 11, No. 2, 75-94
DOI: 10.22839/adp.2022.11.2.75

Community Based At-risk Youths Support Suggestions through At-risk Youth and Youth welfare worker Survey

JeeHyeon Han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candidate

Jaegwang Choi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Ph.D. candidate

Yu-Kyeong Lee
Department of Counseling
Konyang University
M.A. candidate

Wonyoung Song
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status of support service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crisis support based on the opinions of crisis youth and youth welfare workers. To this end, 61 youth welfare workers and 64 youths in crisis were surveyed on the level of problem behavior and the status of youth safety net connec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crisis adolescents experienced crises such as domestic violence, and crisis adolescents had a higher level of problematic behavior than general adolescents. Adolescents in crisis received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and responded that they needed economic support the most. The connection of the youth safety net appeared in the order of child protection specialized institutions and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s, and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exchange and the proportion of the connection. It was reported that a therapeutic support institution was needed for adolescents experiencing emotional behavior problems. Based on these resul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limitations, suggestions, and significance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Community, Crisis support, At-risk Youth, Youth welfare worker